가만히 서서 불만인 표정으로 여자 피규어를 쳐다보고 있는 아내. 뭔가 알 수 없는

섬뜻함을 느낀다. 그때,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난다.

아내: 어, 왔어?

남편: 어, 어...

아내: 뭐야, 왜 그래?

남편이 들고 있는 가방을 눈치채는 아내.

아내: 당신 또 뭐 샀지? 뭐 샀어.

남편: 아니, 별건 아닌데…

아내: 꺼내봐.

가방에서 피규어 상자를 꺼내는 남편.

아내: 그건 뭐야?

남편: 이건 원피스에 나오는 야마토라는 캐릭터인데, 사황의 카이도라는 진짜 센놈

딸이거든? 인기도 엄청나고 그래서 다들 얘가 밀짚모자 해적단의 열번째 동료가 될 줄 알았는데-

아내: 장난해? 무슨 물건이고 얼마 주고 샀냐고.

남편: 피규어… 6만원 정도

아내: 6만원? 그러니까, 그냥 장식해놓고 어쩌다가 들여다 보는 거 빼고는 아무

쓸데가 없는 걸 6만원을 주고 샀다는 말이지?

남편: 왜 쓸데가 없어! 이렇게 예쁘게 장식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보다가

흐뭇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거지.

아내: 그럴 거면 쟤네들이랑 결혼하지, 왜 나랑 결혼했어? 응? 내 얼굴 보는 것보다

쟤네들 얼굴 보는게 더 흐뭇한 것 같은데?

남편: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? 내가 뭐 골프나, 낚시처럼 시간,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를 하는 것도 아니고.

아내: 공간과 비용을 차지하잖아! 바로 며칠 전에 저거 뭐야, 어? 초록색 외계인 여자애

남편: 치라이?

아내: 그래, 치라인지 치타인지. 브로콜리 여친인지 뭔지!

남편: 브로리.

아내: 그래 브로리! 알아! 얘!

남편: 아니거든? 걔는 드래곤볼 제트 극장판에 나오던 오리지널 브로리고, 내가

얘기한 브로리는 신 드래곤볼 슈퍼 극장판에 나온 새로 나온 브로리거든?

그리고 남친, 여친도 아니야, 걔네 아직 썸이야!

아내: 어이가 없다… 그리고 또 그 바로 전에는 얘네들 샀지? 응? 세트로. 얘네들은

뭐야? 세트인 거 보니까 커플이야?

남편: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말을 할 수가 있어?

아내: 뭐가 더러워?

남편: 걔네는 남매거든! 귀멸의 칼날 몰라?

아내: 미치겠다 진짜...

남편: (피규어를 가져와서) 그럼 얘는 누군지 알아?

아내: 뭐야 갑자기…

남편: 얘는 누군지 맞춰봐.

아내: 싫어.

남편: 제발~

아내: 아휴… 걔는 머리 노란 거 보니까 그거네. 초사이어인.

남편: 땡! 얘는 런치라고 드래곤볼 캐릭터는 맞지만 그냥 지구인이야!

천진반이라고 눈 세개 달린 새끼있는데 걔한테 반하거든.

아내: 나침반은 또 뭐야…

남편: 그럼 마지막! (니코 로빈 피규어를 가져오며) 얘는?

아내: 그만해라…

남편: 마지막이라니까! 얘는 누군지 알아?

아내: 아… 니코틴 땡겨…

남편: 아깝다! 원피스에 나오는 니코 로빈이었습니다!

아내: 그만해 진짜! 아니, 남자가 서른 넘어서 헬스나 요리 같은 생산적인 취미나 가질

것이지 플라스틱 쪼가리나 가지고 실실 대면서 쪽팔리지도 않아?

잠시 침묵이 흐른다. 아내는 자신이 말실수 한 걸 깨달았는지 미안한 표정을 짓는다.

아내: 미안해.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였어…

남편: 아니, 그런 뜻으로 말한 거겠지. 옛날부터 세상 인식이 그렇잖아.

헬스하고, 스포츠하고 밖에서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은 무슨 선진 시민이고,

나같이 아무한테도 피해 안 주고 혼자서 집에서 피규어 모으고, 게임하는

사람들은 후진 시민이고.

아내: 아니야, 내가 흥분해서 말실수 한 거지, 그런 거 정말 아니야.

남편: 아니긴 뭐가 아니야, 잘 알겠어. 당신의 그 청룡인 같은 마인드!

아내: …청룡인이 뭐야?

남편: 원피스에 나오는 세계 귀족

아내: 야이 미친!

아내, 엄청 화를 내려다가 이내 평정심을 되찾는다.

아내: 솔직히... 당신이 거의 여자 캐릭터 피규어들을

많이 사니까 내가 질투도 나고 그래… 플라스틱 여자애들한테 질투심 느끼는

내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돼? 그리고… 우리 곧 아기도 가져야 하잖아.

아기가 있는데 주위에 입에 넣을 수도 있는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으면

안전하겠어?

남편: 그래… 당신 말을 들으니까, 그게 맞는 것 같아. 앞으로는 자제하고, 아기

낳을 때 쯤에는 진짜 아끼는 것들만 제외하고 다 정리할게.

아내, 남편의 두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

아내: 이해해줘서 고마워.

남편: 아니야, 나야 말로 이런 나와 살아줘서 고맙지.

풀샷으로 카메라가 전환이 되면 남편은 혼자 서 있고 아내는 온데 간데 없다.

갑자기 어두운 음악이 나오며 갑자기 남편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돌변한다.

남편: 어디 갔어, 여보? 아 맞다… 나 결혼 한 적 없지...

남자, 피규어들 쪽으로 고개 돌며

남편: 난 역시… 니들만 있으면 돼…

음침한 음악이 나오며 여자 피규어 하나가 줌인이 된다. 줌이 멈추면…

피규어: 존나 싫어 진짜

-THE END-